

남궁산과 하성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난 남궁산은 대학에서 서양화를, 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한 후 1987년 이래 판화작업에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제2세대 민중판화 작가로 구분되는 작가로 주로 목판화를 통해 민중판화 작업을 선보여 왔다. 그의 작품에는 오운, 이철수 등 1세대 작가들이 보여준 민중적 정서 위에 민족 고유의 서정을 밝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오고 있다는 평이 따른다. 그가 현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출판과 미술의 행복한 만남'인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집의 표지, 달력 등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판화를 배우는 소설가
소설가를 친구로 둔 판화가

판화가 남궁산과 소설가 하성란. 하는 일은 달라도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이들이 시종여일, 세상과 사람살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이 물씬 담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라는 사실이다. 그 작품의 형태가 '판화'와 '소설'이라는 것만 다를 뿐이다. 닳은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친해지면 닳게 되는 것일까?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속내가 무척 닳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서로 교차하는 선한 빛의 눈동자 속에 담긴 무구無垢의 천진성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들은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깃듯하게 예의를 차리면서 안부부터 묻는다.

"하성란 씨, 최근에 시력 교정시술을 했다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글 쓰는 데 지장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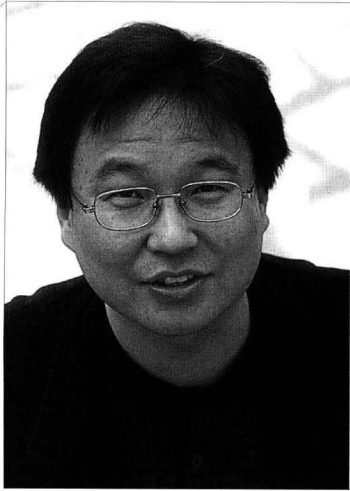
"선배님 염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이주일 후쯤이면 다 아물 거예요. 남궁 선배님도 요즘 건강이 어땀는지 모르겠어요. 환절기라서 감기 환자들이 많던데..."

하성란 역시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토박이다.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하고 199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후, 특유의 치밀한 묘사와 서정적인 문체, 절묘한 구성 등을 통해 한국 소설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였다는 평을 받는 작가이다. 이미 그녀는 1999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공인받고 한국 문학사의 중요한 목록으로 편입되었다.

이처럼 자신들의 분야에서 뚜렷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세계일보> 기자로 있는 소설가 조용호의 책이 출간되었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장에서였다. 물론 상대방의 이름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던 터. 남궁산은 그날 하성란을 처음 보고 느낀 인상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눈이 참 크다는 생각을 했고 인상이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사람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났죠."

"남궁산 선배님 역시 참 맑고 편안해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좌중의 어색한 분위기를 항상 먼저 풀어주시는



“관화의 소재를 구상하다 보면 정지된 삶의 한 장면, 다시 말하면 삶의 어떤 한 순간을 포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관화와 시의 발상은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고 봐요. 관화는 이를 시각언어로, 시는 음성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삶의 어떤 순간이 가리키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시인은 시로 쓰고 관화는 나무에 새기는 것이죠.”

분이셨어요. 서글서글한 인상만큼이나 정이 많은 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들은 이후 김인숙, 윤대녕, 은희경, 정길연, 조용호, 최재봉 등과 두루 어울리면서 각별한 우정을 이어간다. 하지만 이들이 결정적으로 친해진 계기는 작가 하성란이 관화가 남궁산의 관화실기 강의를 수강하면서부터다.

“1999년 복사꽃 문화센터에서 관화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성란 씨가 수강생으로 들어왔어요. 원고마감에 쫓겨 수업에 빠지는 날도 있었지만, 타고난 미적감각 때문인지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더군요.(웃음) 그때 참 많이 친해졌죠.”

“제가 관화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였어요. 직접 작품제작에 참여하게 되면 작품을 관람할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남궁산 선배가 관화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별 망설임 없이 수강하게 되었어요.”

점묘법의 작가 하성란

문단의 마당발 남궁산

〈한겨레〉 최재봉 기자에 의하면 남궁산은 ‘문단의 소문난 마당발’이다. 오산학교(오산고등학교)를 나온 그는 소월과 백석을 선배로 떠받들 정도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한다. 남궁산이 여러 문인들과 격의 없는 우정을 나누게 된 데는 이처럼 문학에 대한 그의 간단없는 열정이 자리잡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글쓰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죠. 친구들의 작품들을 찾아 읽으면서 영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성란 역시 미술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

다. 평소 화집을 즐겨 보고 시간이 나면 직접 갤러리를 찾기도 한다. 대화 도중 하성란의 입에서 미술 전문용어들이 쉽게 나오는 걸 보면 미술에 대한 그녀의 견문이 꽤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궁산은 2001년 친분을 쌓아온 여덟 명의 문인들과 함께 책을 엮는 작업을 벌인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생명, 그 나무에 새긴 노래》라는 책이다. 남궁산이 관화를 제작하고 거기에 문인들이 시나 짧은 산문을 곁들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 하성란도 빠지지 않았다. 이들의 우정이 글과 그림의 대화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이들에게 참 의미가 있는 책으로 기억된다.

이들 두 사람은 관화가 문학, 특히 시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화의 소재를 구상하다 보면 정지된 삶의 한 장면, 다시 말하면 삶의 어떤 한 순간을 포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관화와 시의 발상은 비슷한 점이 아주 많다고 봐요. 관화는 이를 시각언어로, 시는 음성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삶의 어떤 순간이 가리키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시인은 시로 쓰고 관화는 나무에 새기는 것이죠.”

이들은 또한 서로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나 이해도가 무척 깊다.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우정이란 그 사람의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을 떠오르게 한다.

“하성란 씨의 소설을 가리켜 문학평론가 김윤식 교수가 마이크로적인 묘사라고 일컬었는데요, 저는 그 표현보다 점묘법적인 묘사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서로 다른 색점으로 공간을 메우면 두 색상이 섞인 것과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런 세계를 하성란 씨의 소설이 보



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성란 씨 소설은 역사적인 거대 담론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회적으로 에둘러 말하죠. 저는 특히 1999년 동인문학상 수상작인 <곰팡이꽃>이나 <옆집 여자>를 참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남궁산 선배의 작품은 참 따뜻해요. 갖가지 동식물과 해와 달, 구름 등 우리와 가까운 자연과 생명들을 즐겨 다루거든요. 남궁 선배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장서표 작업을 통해 문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를 표현하고 계신데, 그런 작업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성란의 말처럼 남궁산의 판화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장서표藏書票다. 장서표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책에 소유와 애정을 표시하는 의미로 새기는 일종의 표식인데 이후 예술적인 가공이 더해지면서 독립된 작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장르다. 남궁산은 우리나라에 장서표를 예술작품으로 각인시킨 선두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밝히는, 장서표를 시작한 계기는 이렇다.

“1991년 첫 개인전을 열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중국의 미술가들이 장서표를 보여주더군요. 충격을 받았죠. 사실 장서표라는 것이 서구나 중국에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궁산의 장서표는 표주들의 개성이 완연하게 표현된다는 게 특징이다. 그가 제작한 하성란의 장서표는 책 위에 뱀이 꼬아리를 틀고 그 가운데 꽃이 피어 있는 독특한 문양이다. 남궁산은 하성란의 어떤 부분에서 뱀과 꽃을 본 것일까.

“하성란 씨는 워낙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지



남궁산이 제작한 하성란의 장서표



금처럼만. 그 밖에 다른 바람은 필요 없죠.”

“남궁 선배 역시 지금처럼 삶의 따뜻함을 담아내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판화실기 강의 하실 때의 그 진지하면서도 치열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그렇게 덕담을 나눈다. 판화를 배우는 소설가와 소설가를 친구와 팬으로 둔 판화가. 이들의 인연은 이렇게 예술이라는 울 안에 조화롭게 걸머져 있다. **한문**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